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잠재성장률 2016년 이후 2%대 진입

목 차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잠재성장률 2016년 이후 2%대 진입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및 기본가정	2
3.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5
4.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잠재성장률 2016년 이후 2%대 진입

■ 개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잠재성장률 추이) 국내총생산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까지 낮아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로 하락하였다.

<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

기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잠재성장률	7.3%	5.6%	4.7%	3.9%	3.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정) 잠재성장률 전망은 2030년까지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의 전망 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선진국 수준(70%)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높다고 가정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하였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에 정체된다고 가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낮다고 가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고 가정하였다.

< 기본 시나리오 전망 가정 >

	전망 가정
노동투입	-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사용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연간근로 시간 등은 과거 추계치를 이용하여 전망 - 자연실업률은 지난 10년간 자연실업률 평균값이 지속된다고 가정
자본투입	- 감가상각률은 현재 수준에 고정되었다고 가정 - 총고정자본형성은 과거 추세치로 예측
총요소생산성	- OECD 국가 평균 수준(1.3%p)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

주 :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전망 가정은 본문 5p 참조.

(잠재성장률 전망)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전망 >

기간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잠재성장률	기본 시나리오	2.7%	2.3%	2.0%
	낙관적 시나리오	3.2%	2.9%	2.7%
	비관적 시나리오	2.4%	2.1%	1.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시사점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을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1. 개요

○ **국내 경제는 노동 및 자본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노동 및 자본투입의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잠재성장률은 자본축적 증가, 노동인구 증가, 기술진보 등 장기적인 변화가 경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침

- 국내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2000년)¹⁾에서 고령사회(2017년)로는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26년)는 9년이 소요되어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²⁾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급감과 자본투입의 한계 등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향후 2030년까지 국내 잠재성장률 변화를 전망**

- 통계청의 인구추계, 계량기법, 선진국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내 잠재성장률을 예측하였으며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

1)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

2) 미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72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6년이 걸렸으며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11년이 소요.

2.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및 기본가정

1) 잠재성장률 분석방법

○ 잠재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사용하여 산출

-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전망

- 과거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산출
- Y 는 국내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L 은 노동투입, K 는 자본투입이며 α 는 노동분배율, $1-\alpha$ 는 자본분배율을 의미

$$Y_t = A_t L_t^\alpha K_t^{1-\alpha}$$

- 노동투입의 경우 취업자수×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연간 근로시간 등을 결합하여 산출

- 노동투입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가율)와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 그리고 (1-자연실업률)의 곱으로 계산
- 자연실업률(NAIRU)이란 경제의 균형 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등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 수준

$$\text{노동투입}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자연실업률}) \times \text{연간 근로시간}$$

- 자본투입의 경우 순자본 스톡에서 감가상각률과 총고정자본형성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영구재고법을 적용

- 영구재고법은 순자본스톡에 대한 양의 플로우(총고정자본형성) 누계액에서 음의 플로우(감가상각)의 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

$$\text{순자본스톡}_{t+1} = (1 - \text{감가상각률})\text{순자본스톡}_t + \text{총고정자본형성}_t$$

- 총요소생산성은 실제 경제성장률에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증가율에 따른 기여분의 차이에 의해 결정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이란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 부분을 의미

$$A_t = \frac{Y_t}{L_t^\alpha K_t^{1-\alpha}}$$

2) 잠재성장률 추정 시 기본가정

○ 잠재성장률 전망은 통계청 자료와 계량기법, 선진국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

- 전망은 2030년까지이며 시나리오별로 기본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로 구성
 - 구체적으로 전망 기간은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 기본 시나리오에서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의 가정 변화를 주어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을 산출
- 기본시나리오에서 통계청 자료와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노동투입을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³⁾,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⁴⁾ 등은 AR(1)모형에 시간추세를 포함하여 미래 값을 예측
 -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 추세치의 지난 10년간 평균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3) 경제활동참가율 추정결과

$$\text{경제활동참가율}_t = 10.33 + 0.02 \text{ trend} + 0.82 \text{경제활동참가율}_{t-1}$$

(2.02) (1.45) (9.28)

4) 취업자연간근로시간 추정결과

$$\text{취업자연간근로시간}_t = 199.82 - 1.43 \text{ trend} + 0.93 \text{취업자연간근로시간}_{t-1}$$

(2.45) (-3.17) (32.34)

- 자본투입은 순자본스톡을 감가상각률과 투자의 관계로 2030년까지 전망
 - 감가상각률은 현재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총고정자본형성은 AR(1)모형에 시간추세를 포함하여 미래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를 예측
-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1.3%p에 수렴한다고 가정⁶⁾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발전 초기에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높지만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선진국 수준에 수렴해감
-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 총요소생산성 상승 등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
 - 노동투입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70%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
 - 총고정자본형성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000~2015년 총고정자본형성 평균 성장률의 10%만큼 높음을 가정
 - 총요소생산성은 성공적인 경제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등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000~2015년 총요소생산성 평균 성장 기여도의 10%만큼(+0.2%p) 높음을 가정
- 비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기업들의 투자 부진,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
 - 노동투입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인 60%대 초반에 2030년까지 머무른다고 가정
 - 총고정자본형성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000~2015년 총고정자본형성 평균 성장률의 10%만큼 낮음을 가정
 -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2000~2015년 총요소생산성 평균 성장 기여도의 10%만큼(-0.2%p) 낮음을 가정

5) 투자 추정결과.

$$\text{총고정자본형성}_t = -4873.7 + 2155.3 \text{ trend} + 0.8 \text{총고정자본형성}_{t-1}$$

(-0.76)
(2.50)
(9.94)

6) OECD (2012), "Looking to 2060: A Global Vision of Long-Term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s, No. 15 November 2012.

<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정 >

		전망 가정
기본	노동투입	-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사용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연간근로 시간 등은 과거 추계치를 이용하여 전망 - 자연실업률은 지난 10년간 자연실업률 평균값이 지속된다고 가정
	자본투입	- 감가상각률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 총고정자본형성은 과거 추세치로 예측
	총요소생산성	- OECD 선진국 수준(1.3%p)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
낙관적	노동투입	-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70%)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 -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연간근로 시간, 자연실업률 가정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
	자본투입	- 감가상각률 가정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높다고 가정
	총요소생산성	- OECD 선진국 수준 보다 높은 1.5%p 가정
비관적	노동투입	-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에 정체된다고 가정 -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연간근로 시간, 자연실업률 가정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
	자본투입	- 감가상각률 가정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낮다고 가정
	총요소생산성	- OECD 선진국 수준 보다 낮은 1.1%p 가정

3.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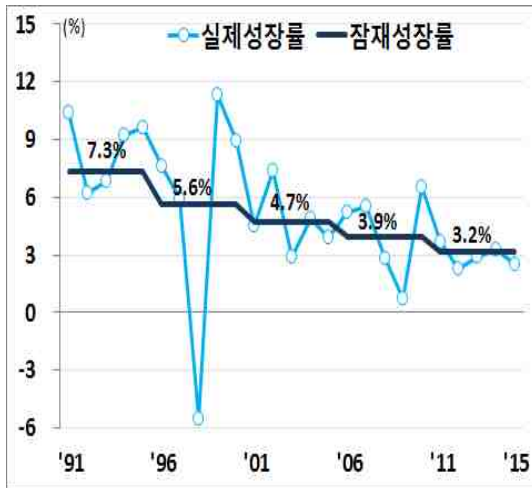
1) 잠재성장률 추이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3.2%임

- 각 생산요소별 전망을 결합한 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3.2%를 기록
 -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지만 실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제성장률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진한 총수요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대 초반에 육박하였으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잠재성장률이 급락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1996~2000년 5.6%로 큰 폭으로 레벨다운
- 2000년대 국내 잠재성장률은 4%대(2001~2005년 4.7%, 2006~2000년 3.9%)로 하락하였음

< 실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2015년 실제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잠재성장률 요인분해 >

(%,%p)

연도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71~75	11.6	2.1	8.0	1.4
1976~80	8.4	1.5	5.3	1.6
1981~85	9.0	1.2	4.7	3.1
1986~90	9.2	1.3	4.7	3.1
1991~95	7.3	1.0	4.0	2.4
1996~00	5.6	0.5	2.7	2.4
2001~05	4.7	0.2	2.0	2.5
2006~10	3.9	0.1	1.7	2.2
2011~15	3.2	0.1	1.5	1.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2) 기본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전망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7%에서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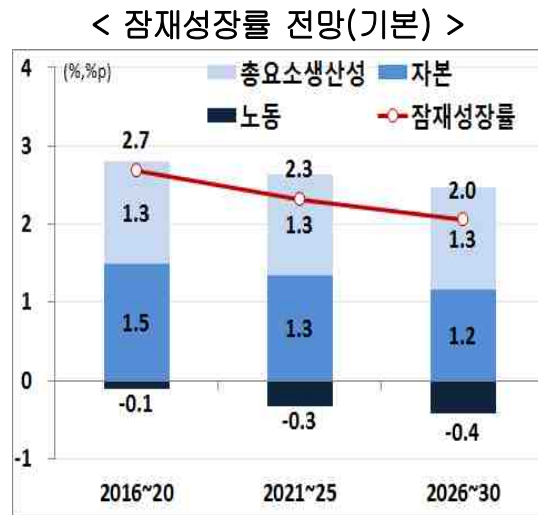
-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 수준으로 추정

· 노동투입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0.1%p, 자본투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1.5%p,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1.3%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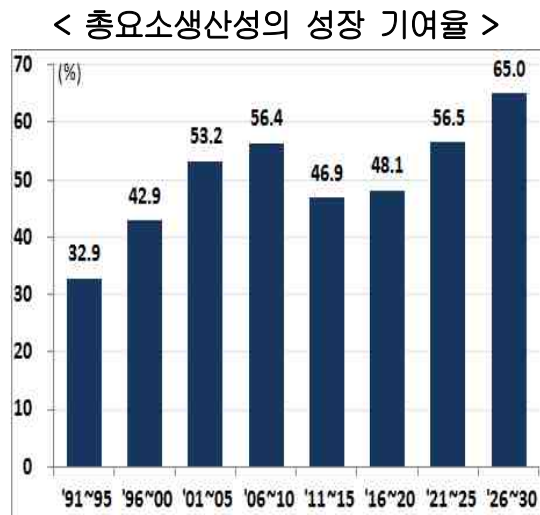
-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노동투입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줄어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자본투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1.5%p, 2021~2025년 1.3%p, 2026~2030년 1.2%p로 차츰 낮아짐
- **총요소생산성이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점차 높아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1.3%p로 일정하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2016~2020년 48.1%, 2021~2025년 56.5%, 2026~2030년 65.0%로 상승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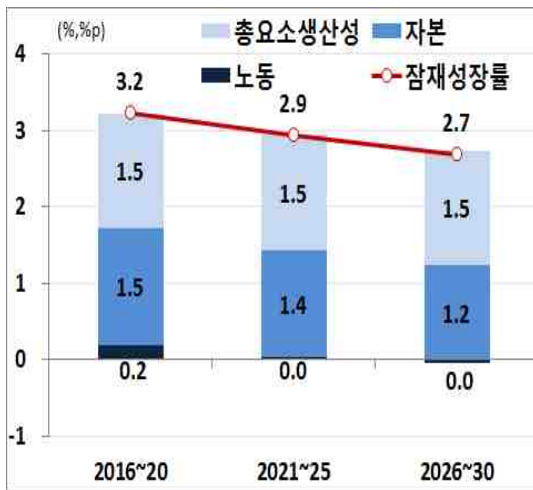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3)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전망

- 노동과 자본 투입의 변동, 총요소생산성의 증감 여부에 따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4~3.2%, 2021~2025년 2.1~2.9%, 2026~30년 1.8~2.7%의 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됨
- 낙관적 전망에서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약 0.5~0.7%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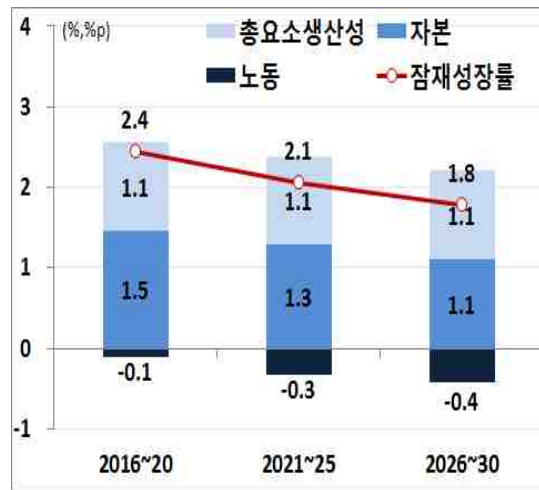
-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
 -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0.2~0.3%p 낮은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 전망(낙관적)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잠재성장률 전망(비관적)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4) 종합평가

- 국내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중 2%대 진입이 예상되며 민간과 정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2%대와 1%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음
- 국내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하였으며 2016~2020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과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음

- 잠재성장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게 된 주요 요인은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등이 모두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여하고 있음
 -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사실상 0%p이며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급감하고 있음
- 잠재성장률은 민간과 정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2%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에 따라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4~3.2%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국내 경제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우며 자본투입 역시 과거와 같은 빠른 축적을 기대하기 힘들
 - 향후 국내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절대적일 것으로 보여 경제효율화, 경제구조 선진화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중요

4. 시사점

-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이 필요**

첫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을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산

등의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적극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방지

-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정년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는 사회·제도적 여건 마련
- 미국과 독일⁷⁾의 경우와 같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보완
- 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지원 강화, 근로 환경 제고,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둘째,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성장 부문의 조기 산업화, 신수요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과 더불어 고부가·고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구 내 법률, 조세, 회계 등 다양한 경영 지원 서비스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서비스 체계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7) 독일의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임.

셋째,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등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에서 배출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는 경제의 효율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고등교육투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학문분야별로 맞춤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경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스스로의 재정적 독립과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토양을 마련
-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동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다양한 질병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
 - 또한, 흡연이나 음주같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인들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넷째,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⁸⁾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 R&D 투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R&D를 통해 개발된 혁신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함
 - 특히, 학계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배출된 지적재산이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
 -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해외에 쉽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 연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신기술들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함

8) 생산요소 한 단위당 산출의 성장(생산성)을 높이는 전략.

- 실물 경제 부문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ICT투자 확대 및 금융 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
 - ICT 투자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혁신 벤처기업을 뒷받침해주고 투자를 하게 하는 금융 산업의 창조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기초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험 자본'이나 '엔젤 투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이 시급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